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신격의
상관관계

-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유보경

2015년 7월 일

김 기 형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신격의
상관관계

-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유보경

2015년 7월 일



유보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5년 7월 일

위원장 김기형 (인)

위원 이형대 (인)

위원 최귀묵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방법	9
II. 가신신화의 예비적 고찰	11
1. <성주풀이> 각편 현황 및 특성	11
2. <문전본풀이> 각편 현황 및 특성	19
3.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서사 비교	24
III.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의 양상	29
1. 남성주인공 - 황우양과 남선비	29
1) 가족 분리의 주체	30
2) 가족 결합과 징치 여부	33
2. 여성주인공 - 황우양 부인과 여산부인	35
1) 가족을 위한 희생	36
2) 악인형 인물에 대한 태도	39
3. 악인형 인물 - 소진량과 노일제대귀일의 딸	42
1) 관계 지향에 따른 행동 양상	43
2) 변장을 통한 가정 내 침입	47



IV. 가신신화에 있어서 신격과 공간의 상관관계	49
1. <성주풀이>에 나타난 신격	49
2.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신격	53
3. 신격과 공간의 관계	58
V. 결론	62
참고문헌	67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의 무속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농사일을 관장하는 세경신, 저승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오구신 등 다양한 신들이 곳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곳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무속신들은 우리의 생활공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정의 안녕과 구성원들의 건강을 돌보며, 가옥과 집터를 지키는 신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신은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입을 통해 신화로 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생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신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가신(家神)’과 ‘가정신(家庭神)’이 있다. 두 용어는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이해된다. 이능화¹⁾는 집 안에 있는 신들을 가택 안에 있다하여 가택신(家宅神)으로 불렀으며, 가신은 가택신의 줄임말로 보았다. 반면 김명자²⁾는 가정신을 가옥과 집터,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들과 관련된 모든 신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가신은 집 안에 좌정하고 있는 신을, 가정신은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신을 각각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신과 가정신의 용어에는 집 안이라는 공간성과 가족의 복리라는 목적성이 각각 다르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³⁾

가택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뜻하는 용어로서 공간에 더욱 주목한 단어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가택신과 줄임말인 가신 역시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가정은 가족이 생활하는 집인 동시에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가정신 역시 혈연관계에 있는 생활 공동체의

1) 이능화, 『조선무속사』, 백록문화사, 1976, 177-191쪽 참고.

2) 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13-15쪽 참고.

3) 최종성, 「가정신앙에 대한 재고 -가정신앙의 범주, 신, 그리고 의례-」, 『종교학 연구』 27, 한국종교학연구회, 2008, 70-71쪽 참고.



복리를 위한 신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신은 성주신, 조왕신, 문신, 측신 등을 일컫고, 가정신은 가신뿐만 아니라 칠성신, 삼신 등을 포함 한다.

이와 관련된 ‘신화’ 역시 ‘가신신화’가 ‘가정신화’와 함께 학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가신신화는 ‘가신의 내력을 밝힌 이야기’, 가정신화는 ‘가정신의 내력을 밝힌 이야기’라는 의미로 두 용어 간의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가정신화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화를 말할 때에도 쓰이는 용어이다. 신화는 향유자의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향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배경인 작품들이 많다. 이처럼 가정의 문제를 서사 내에서 다루고 있는 신화 역시 가정신화라고 하는 것이다.

가족의 복리라는 목적성을 가진 가정신화는 칠성신을 다룬 <칠성풀이>, 삼신을 다룬 <제석본풀이> 등의 신화뿐만 아니라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분의 신화를 말한다. 반면 집 안이라는 공간성의 의미를 가진 가신신화에 부합하는 신화로는 성주신과 지신이 등장하는 <성주풀이>와 조왕신, 문신, 측신이 등장하는 <문전본풀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집 안에 좌정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분석하고자 하기에 ‘가신’과 ‘가신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가신신화로서의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서로 다른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신의 내력을 밝힌 가신신화이다. <성주풀이>에서는 가옥을 수호하는 성주신과 집터를 지키는 지신이 등장하고, <문전본풀이>에서는 측간의 측신과 부엌의 조왕신 그리고 문에 좌정한 문신이 등장한다. 둘째, 등장하는 구성원과 인물의 역할이 비슷하다. 즉 가족 분리의 주체인 남성주인공과 가족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는 여성주인공이 등장하며, 서사 내에서 그들의 역할이 비슷하다. 셋째, 가정을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악인형 인물이 두 신화 모두 등장한다. <성주풀이>의 소진랑과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그들이다.

물론 두 신화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역시 가지고 있다.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신화에 등장하는 가신의 좌정 공간이 겹치고 있지 않다. <성주풀이>는 가옥과 집터에 <문전본풀이>는 측간, 부엌, 문에



신들이 각각 좌정하고 있다. 둘째, 두 신화가 전승·구전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주풀이>는 전승지역이 경기도 즉 육지이고, <문전본풀이>는 전승지역이 제주도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서사무가라고 해서 이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창세신화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지의 <창세가>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각각의 전승환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련성⁴⁾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의 서사무가를 단독으로 다루는 것보다 관련 양상을 보이는 것끼리 묶어 논의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의미를 밝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제주도 신화의 비교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신신화의 비교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인물형상을 비교하고, 그들이 좌정한 공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전승 집단이 신앙하고 있는 신이다. 따라서 신화의 세계관은 그 신을 믿는 전승 집단의 세계관이 된다.⁵⁾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승 집단의 세계관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더 나아가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집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무엇보다 신화의 공간인 집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자 가장 보호 받아야할 영역이기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신격과 좌정 공간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겠다.

4) 창세신화의 중요한 신화소는 천지개벽, 해와 달의 조정(調整), 인간의 창조, 국조(國祖)의 탄생과정, 통치권다툼 등이다. 함흥의 <창세가>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그 중 해와 달의 조정, 국조의 탄생과정, 통치권 다툼의 신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응백 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2826-2828쪽 참고.)

5) 이창윤, 「북부형과 제주형 창세신화의 지역적 특성」, 『실천민속학연구』2, 실천민속학회, 2000, 86쪽 참고.



2. 연구사 검토

앞서 밝힌 바대로 현재 가신신화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신 두 신화가 함께 다뤄진 경우가 있는데 최원오⁶⁾와 이명숙⁷⁾의 연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모든 신화를 대상으로 삼다보니, 양자 간의 정밀한 비교 연구는 수행되지 못 하였다. 더욱이 소재적 측면에서 신화 속 가신들의 특징 정도를 밝히는 것에 머물러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두 신화는 단순히 가정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집 안에 좌정하는 가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주목해야한다.

반면 두 신화를 견주어 살핀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살핀 연구는 다수 축적되었다. 가신신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서사 외적 연구, 둘째, 서사 내적 연구이다.

1) 서사 외적 연구

<성주풀이>의 서사 외적 연구로는 유형연구가 있다. 유형에 관한 연구는 <성주풀이>로 불리는 무가 중 서사성을 갖춘 무가와 교술성을 갖는 무가를 분류하여 비교한 연구를 말한다. 유형연구를 최초로 한 연구자는 김태곤이다. 김태곤⁸⁾은 성주무가를 서사적 양식의 천상계와 전술(傳述)적 양식의 안동 제비원 본향계통으로 대별하였는데, 이 분류 기준과 방법은 후속 연구⁹⁾에도 영향을 미쳤다.

6) 최원오,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13, 국문학회, 2005.

7) 이명숙, 「무속신화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돈암어문학』19, 돈암어문학회, 2006.

8) 김태곤, 「무가의 전승변화 체계」, 『한국민속학』7, 민속학회, 1974.

9) 김나영, 「성주무가 사설의 ‘공간-영역’에 관한 세 층위의 분석」, 『인문과학연구』29,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2. ; 배성순, 「성주무가의 유형비교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정원, 「성주무가의 유형과 표현구조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5.



다만 현재는 성주신의 내력과 좌정담이 담긴 성주무가를 서사무가로, 성주신에 대한 칭배와 기원·축원이 주 내용인 성주무가를 교술무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무가의 내용과 전승의 편차는 크다. 즉, 성주신과 성주신의 직능에 대한 믿음 자체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과 곳의 성격에 따라 불리는 무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문전본풀이>의 서사 외적 연구는 동계자료와의 비교 연구이다. <문전본풀이>는 서사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남지방(湖南地方)의 <칠성풀이>, 관서지방(關西地方)의 <성신굿>, 관북지방(關北地方)의 <살풀이> 등과 동계 자료로 인식되어 연구된 바 있다. 이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밝힌 연구자는 서대석이다. 서대석¹⁰⁾은 <살풀이>, <성신굿>, <칠성풀이>, <문전본풀이>를 하나의 신화로 취급하였다. 또한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신화는 ‘계모(繼母) 이야기’라는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가정의 탄생-가정의 시련-시련의 극복-가정의 완성’이라는 서사구조를 갖춘 ‘가정신화’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¹¹⁾들은 서대석의 논지에 따라 <살풀이>, <성신굿>, <문전본풀이>를 <칠성풀이>의 각편으로 연구대상화 하여, 이들 신화를 하나의 신화 혹은 같은 계열의 신화로 취급하였다.

반면 정주혜¹²⁾는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변별성을 들어 두 작품을 분리하여 고찰하였고, 정제호¹³⁾는 이들 무가의 변별적 특성을 지적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서사무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를 독립하여 연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성주풀이>는 성주신의 내력과 좌정 경

10) 서대석, 「<칠성풀이>의 연구-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65, 진단학회, 1988.

11)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동이성」,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 흥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12)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

13) 정제호,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별적 성격과 주제의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제호,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여성 지위에 따른 전개 양상 고찰」, 『비교민속학』45, 비교민속학회, 2011.



위를 분석하고자 하기에, 황우양씨 계열의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또한 <문전본풀이>는 <칠성풀이>의 각편이 아닌 독립된 신화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서사 내적 연구

유형에 관한 연구와 함께 <성주풀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는 연구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이다. 특히 이들 연구는 주인공과 악인형 인물의 대립에 주목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신격과 연관되어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먼저 신동훈¹⁴⁾은 서사 내에 나타나는 대립이 신격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하였다. 그는 <성주풀이>에서 보이는 시련은 황우양과 소진랑의 대립이며,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황우양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지켰기 때문에 소진랑과의 대립에서 승리하여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서대석¹⁵⁾은 좌정한 신격의 대립에 주목하여, 황우양과 소진랑의 대립을 성주집단과 서낭집단의 싸움으로 보았다. 이는 중국에서 전래한 성황신앙과 토속신앙인 서낭신앙과의 대결이며 더 나아가 지배층 신앙과 피지배층 신앙의 대결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길제¹⁶⁾와 김나영¹⁷⁾도 서대석과 같이 좌정한 신격의 대립에 주목하였는데, 성길제는 둘의 대립을 농경사회 이전의 신과 이후 신의 대립으로 보았고, 김나영은 황우양부인의 정체를 화랭이 집단으로 보아 황우양과 소진랑의 대립은 세습 영역을 지키려는 집단과 빼앗으려는 집단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4) 신동훈,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우산이인섭교수화갑기념논문집』, 우산이인섭교수화갑기념 간행위원회, 1995.

15) 서대석, 「성주풀이 연구」,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16) 성길제, 「성주무가의 연구」, 한림대 석사학위논문, 1996.

17) 김나영, 앞의 논문, 2011.



이와 같이 <성주풀이>의 서사 내적 연구는 악인형 인물인 소진랑을 주인공과 대립되는 신적 존재로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반면 <문전본풀이>의 서사 내적 연구로는 등장인물 및 신격에 대한 연구가 있다. 등장인물 및 신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립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에 주목한 연구이다.

먼저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립에 관한 연구로는 장유정¹⁸⁾의 논의가 있다. 그는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립을 불과 물의 대립으로 보았는데 여산부인은 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태양신앙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신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김재용¹⁹⁾은 둘의 관계를 기존의 신격과 새로 도래한 신격의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표면적으로 처와 첩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지만 그 근거(根柢)에는 기존 신과 새로 도래한 신격의 같음이라는 신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고찰하였다.

이 밖에도 둘의 대립을 신격의 관점이 아닌 사회 형상의 관점으로 본 연구가 있는데 먼저 권복순²⁰⁾은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대립을 공식문화와 비공식문화의 대립으로, 성정희²¹⁾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욕망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처럼 등장인물의 대립에 관한 연구는 처와 첩 관계에 주목하여 두 신직을 비교한 것이 많다. 특히 <성주풀이>와 마찬가지로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주인공과 대립되는 신적 존재로 보고 있어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에 주목한 연구로는 악인형 인물에 관

18)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야이유카르>의 비교 고찰」, 『국문학연구』7, 국문학회, 2002.

19)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20) 권복순, 「'문전본풀이'의 대립적 인물성격 연구」, 『실천민속학연구』13, 실천민속학회, 2009.

21)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45, 겨레어문학회, 2010.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먼저 이지영²²⁾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행하는 악행의 실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격을 분석하여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길태숙²³⁾은 악인형 인물에 주목하였지만 결국에 그의 악행은 상대신에 대응하는 적대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하였다. 즉 서사 내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적대자로서 영웅인 막내아들에게 시련을 주고 그에 대한 극복을 통하여 신으로 입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문범두²⁴⁾는 <문전본풀이>를 사체환생을 통한 생산물 기원신화로 규정하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생명을 낳는 지모신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서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보다 사체환생 모티프에만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화 속 주인공이 아닌, 그들에게 시련을 주는 악인형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밝혔기에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 행동과 성격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신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인물 연구에는 남선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권복순²⁵⁾은 남선비의 시련과 신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권복순의 연구는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남선비의 행동이 단순히 무능력한 가장이라서가 아니라 심리적 변화에 따른 행동이라고 평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신신화의 서사 내적 연구는 대립에 주목한 것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두 신화는 등장인물 모두가 신으로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직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 져야지만 가신신화의 특징과 의미를 면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신화가 가신신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가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간’에 대한 측면

22)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23)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9, 열상고전연구회, 2007.

24) 김정호 외, 「고전문화 : 한, 일 사체환생신화 연구 -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오케츠히 메노카미"를 중심으로」, 『배달말』54, 배달말학회, 2014.

25) 권복순, 「<문전본풀이> 남선비의 심리구조와 그 의미」, 『語文學』114, 한국어문학회, 2011.



이다. 가신은 단순히 직능을 가진 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이 좌정하는 공간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가신신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물 간의 관계를 따짐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립을 통해 나타난 선악의 분리가 공간 좌정과 관련되는 양상이 ‘가신’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공간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인물형상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성격 및 좌정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비교연구에 앞서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각편 현황을 조사하고, 서사 구조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주풀이>는 전국적으로 채록되어 많은 각편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성주신의 내력을 밝힌 서사무가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기에, 서사무가형 <성주풀이>를 따로 분류하여 각편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전본풀이>가 <칠성풀이>의 각편이 아닌 독립된 신화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까지 채록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각편의 대표 본을 설정하고, 두 신화의 서사 구조를 비교하여 연구에 활용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두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립하는 두 인물에 주목한 연구가 대다수이지만 두 신화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물을 다루어야 가신신화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등장인물을 ‘남성 주인공 - 황우양과 남선비’, ‘여성주인공 - 황우양 부인과 여산부인’, ‘악인형 인



물 - 소진량와 노일제대귀일의 딸'로 나누어 각각의 행동양상과 그에 따른 결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사 내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행동양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결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은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앞서 밝힌 등장인물의 행동양상을 바탕으로 이들 인물의 성격과 좌정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신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단순히 직능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 좌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형상과 성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좌정한 공간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가신신화에서의 집은 어떤 의미인지 밝히도록 하겠다.



Ⅱ. 가신신화의 예비적 고찰

1. <성주풀이> 각편 현황 및 특성

<성주풀이>는 성주굿에서 불리는 무가로, 집안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성주신에게 식구들의 건강과 번창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정을 단위로 해서 식구의 재복을 비는 제의이기에 성주굿의 목적은 당연히 가족의 제액(除厄)과 재수발원이다.²⁶⁾

<성주풀이>는 전국적으로 채록되어 많은 각편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채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무가집3』은 ‘성주풀이’, ‘성주축원’, ‘성주푸념’, ‘축원’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굿판에서 채록한 것이므로 따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현재까지 채록된 <성주풀이>의 자료양상은 다음과 같다.

연번	각편명	구송자	전승지역	조사자	출처	발표 년도
1	成造푸리	최순도	경남 동래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1930
2	成造님께 올리는말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1930
3	성조님청배	전명수	평북 강계	손진태	조선무격의 신가	1935
4	성주푸리	배경재	경기 수원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5	성조축원	배경재	서울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6	성주본가	이성녀	경기 고양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7	황제푸리	배경재	서울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2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470쪽
참고.



8	마지뜨는말	최종협	충남 논산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서	1937
9	성주굿	정운학	평남 평양	임석재 장주근	관서지방무가	1966
10	성주풀이		제주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
11	성주굿(Ⅰ)	박소녀	전북 부안	임석재	줄포무악	1970
12	성주굿(Ⅱ)	성씨	전북 부안	임석재	줄포무악	1970
13	성주거리	문덕순	서울	김태곤	한국무가집1	1971
14	황제풀이		경기	김태곤	한국무가집1	1971
15	성주굿	이어린년	충남 부여	김태곤	한국무가집1	1971
16	성주굿	윤을득	강원 고성	김태곤	한국무가집1	1971
17	성주굿	변연호	경북 울진	김태곤	한국무가집1	1971
18	성주굿①	김유선	경북 월성	최정여 서대석	동해안무가	1974
19	성주굿②	김미향	경북 월성	최정여 서대석	동해안무가	1974
20	성주푸리		경북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4	1974
21	성주만새문	박주원	경북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4	1974
22	성주굿	장금순	전북 군산	김태곤	한국무가집2	1976
23	성주굿	이점덕	전남 목포	김태곤	한국무가집2	1976
24	성주드리는 말문	송희식	경북 안동	김태곤	한국무가집2	1976
25	성주거리	서점순	경기 인천	김태곤	한국무가집2	1976
26	성주굿	유순덕	황해 해주	김태곤	한국무가집2	1976
27	성주굿	정대복	평남 평양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28	성주	이고분	함남 함흥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29	성주굿	심복순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30	성주굿	김수희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31	성주굿	배성녀	전북 고창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32	성주	이애순	전남 관양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33	성주푸리	안사인	제주 북제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 사전	1980
34	성주굿노래	신석남	강원 강릉	김선풍	구비문학대계2-1	1980
35	성주푸리	김병오	충북 충주	김영진	구비문학대계3-1	1980



36	성주푸리	임성길	충북 중원	김영진	구비문학대계3-1	1980
37	성주굿	김석출	경북 영일	김태곤	한국무가집4	1980
38	성조가옥장	장명수	강원 춘천	서대석	구비문학대계2-2	1981
39	성조경	장명수	강원 춘천	서대석	구비문학대계2-2	1981
40	성주푸리	정진현	충북 청주	김영진	구비문학대계3-2	1981
41	성조경	김향식	충북 청주	김영진	충청도무가	1982
42	성조푸리	신태완	충북 청주	김영진	충청도무가	1982
43	성주굿(1)	송기철	경기 안성	조희웅 이근용	구비문학대계1-6	1982
44	성주굿문서 (황제풀이)	송기철	경기 안성	조희웅 이근용	구비문학대계1-6	1982
45	성주굿(2)	이동숙	경기 안성	조희웅 이근용	구비문학대계1-6	1982
46	성주풀이	송분임	경기 강화	조동일외	구비문학대계1-7	1982
47	성주축원	치천년	충남 아산	서대석	구비문학대계4-3	1982
48	성주경(1)	김남수	강원 양양	김선평 김기설	구비문학대계2-5	1983
49	성주경(2)	김남수	강원 양양	김선평 김기설	구비문학대계2-5	1983
50	성주경	최은철	충남 보령	박계홍 황인덕	구비문학대계4-4	1983
51	성주경	박영식	강원 횡성	서대석 황루시외	구비문학대계2-6	1984
52	성주풀이	양월봉	충북 영동	김영진	구비문학대계3-4	1984
53	성주풀이	김옥순	전북 군산	박순호 이홍	구비문학대계5-4	1984
54	성주거리	이춘옥	경북 봉화	임재해 김명자외	구비문학대계7-10	1984
55	성주풀이	문연화	전남 승주	박순호	구비문학대계6-4	1985
56	성주굿노래	김소님	전남 해남	이현수	구비문학대계6-5	1985
57	성주풀이	최미래	전남 해남	이현수	구비문학대계6-5	1985
58	성주굿	양군심	전남 신안	최덕원	구비문학대계6-7	1985
59	성주풀이	김춘자	강원 영월	김선평	구비문학대계2-9	1986
60	성주풀이	이원용	강원 영월	김선평	구비문학대계2-9	1986
61	성주경	김순예	전남 장성	최래옥 김균태	구비문학대계6-8	1986



62	성주풀이	박미녀	경남 하동	김승찬 관채영	구비문학대계8-14	1986
63	성주풀이	안사채 조동운	전남 화순	김균태 전송자	구비문학대계6-10	1987
64	성주반	김막례	전남 보성	최덕원	구비문학대계6-12	1988
65	성주풀이	김막례	전남 보성	최덕원	구비문학대계6-12	1988
66	성주풀이①	김행연	전남 보성	최덕원	구비문학대계6-12	1988
67	성주풀이②	김행연	전남 보성	최덕원	구비문학대계6-12	1988
68	황제풀이	정영숙	경기 인천	이선주	인천지역무속3	1989
69	황제풀이	도정희	경기 인천	이선주	인천지역무속3	1989
70	성주굿	송기철	경기 안성	박경신	안성무가	1990
71	성조거리	김동언	경남 울산	박경신	동해안별신굿무가	1993
72	황제거리	송경옥	경남 울산	박경신	동해안별신굿무가	1993
73	성주굿노래	박용녀	강원 강릉	김선평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1994
74	성주굿노래	빈순애	강원 강릉	김선평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1994
75	성주굿	김홍금	경기 화성	이용범	화성의열3	1998
76	성주	조순웅	경기 화성	하주성	화성의열4	1999
77	성주굿	오수복	경기 수원	하주성	경기도당국의 무가	2000

【표-1】 <성주풀이> 각편 현황

성주신은 집 안을 지키는 신이기에 무속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에서도 모셔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가가 다양하게 채록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모두가 서사무가는 아니다. 대부분 청배나 축원적인 성격이 강한 교술무가²⁷⁾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신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므로, 신의 내력을 밝힌 서사무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성주

27) 교술무가인 <성주풀이>는 대부분 축원(祝願), 송덕(頌德), 찬신(讚神), 공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장편적(長篇的)인 것과 단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편적인 것은 가옥의 신축(新築)이나 이사를 앞두고 성주신을 새로 봉안(奉安)하는 '성주맞이' 굿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무가이다. 반면 단편적인 것은 일반적인 무의식(巫儀式)에서 '성주거리'가 굿 절차상의 한 거리로 들어가 무(巫)에 의해 구송되는 것을 말한다.(김정원, 앞의 논문, 1995, 38쪽 참고.)



풀이>는 서사무가형 <성주풀이>를 말하는 것이다.

서사무가 <성주풀이>는 경기도 안성,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었으며,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에 의해 채록된 이래 총 9편의 각편이 있다.

연번	각편명	구송자	전승지역	조사자	출처	발표 년도
1	성조본가	이성녀	경기 고양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7
2	성주굿	심복순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3	성주굿	김수희	경기 화성	김태곤	한국무가집3	1978
4	성주굿(1)	송기철	경기 안성	조희웅	구비문학대계1- 6	1982
5	성주굿문서 (황제풀이)	송기철	미상	조희웅 이근용	구비문학대계1- 6	1982
6	성주굿	송기철	경기 안성	박경신	안성무가	1990
7	성주굿	김홍금	경기 화성	이용범	화성의얼3	1998
8	성주	조순웅	경기 화성	하주성	화성의얼4	1999
9	성주굿	오수복	경기 수원	하주성	경기도당굿의 무가	2000

【표-2】 서사무가 <성주풀이> 각편 현황

<성주풀이>는 '성주풀이', '성조본가', '성주굿' 등의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 중 '성주굿'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다. 이는 <성주풀이>가 경기 남부 지역의 성주굿에서 구송되는 무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사무가형 <성주풀이>는 성주신의 내력을 밝히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신의 본을 푼다는 의미로 '성주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성주풀이> 각편의 특성을 정리하면 먼저 1번 각편은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라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로,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된 각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이른 시기에 채록된 자료이지만 대체로 서사적 짜임새가 잘 정돈되어 있다.

2, 3번 각편은 김태곤에 의해 조사된 자료로, 채록한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에 의해 일정 정도 편집된 자료이다. 2번 각편은 황우양의 어렸을 적 비범함과 천하공을 재건하는 장면을 다른 각편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황우양의 능력이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각편의 경우 유일하게 황우양 부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계룡산 막막 부인’이라는 이름은 전승과정에서 덧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²⁸⁾ 특히 황우양이 소진랑에게 속아 옷을 바꿔 입는 내용이 없으나, 뒷부분에 부인에게 옷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사의 맥락에 혼란이 있다. 또한 삼일말미를 얻는 내용이나, 혈서 남기는 내용이 누락되고, 꿈 매개 없이 부부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다른 각편에 비해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4, 5, 6번 각편은 한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것이지만 4번 각편은 송기철이 글로 적어 제공한 것이고, 5번 각편은 이동숙 보살이 구연한 뒤 조사자의 요청으로 송기철이 재구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숙의 구연본과 합치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많이 생략하였다.²⁹⁾

세 개의 각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4번 각편은 황우양의 본을 천하공으로 하고 있는 앞선 각편과 다르게 그의 본을 안동 제비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6, 7, 8번 각편으로 이어진다. 또한 6번 각편과 함께 조왕신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 송기철본에서만 조왕신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4번 각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진랑이 징치되는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소진랑이 징치되고 부부가 신으로 좌정하는 다른 각편과 다르게, 4번 각편은 소진랑의 징치 없이 부부가 만나 신으로 좌정하면서 끝이 난다.

5번 각편은 부인의 혈서를 발견하도록 돕는 존재가 없다는 점을 빼고는 다른 각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6번 각편은 채록 현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황우양 본을 설명하는 부분나 녹음상태 불량으로 3차에 걸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원형을 알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황우양 부인이 금기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소진랑이라는 이름이

28) 신동훈은 <성주풀이>가 초월계를 공간으로 삼고 있기에 ‘계룡산’이란 실경(實景)의 단어는 전승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신동훈, 앞의 논문, 1995, 3쪽 참고)

29) 서대석, 앞의 논문, 1989, 11쪽 참고.



등장하여, 악한의 존재가 미리 암시된 것이 특징이다.

7번 각편은 전체적으로 서사구성이 탄탄한 편이지만, 조사 상황이나 세밀한 채록 환경까지 첨부되지 않았다. 이 각편은 소진량이 징치되는 부분에서 연장³⁰⁾이 등장하여 다른 각편과 다르다 할 수 있다.

반면 8번 각편은 채록 환경이 첨부되어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갖고 있지만, 다른 각편과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는 특이점이 없는 편이다. 다만 서사 끝에 계면이 추가되었고, 그 부분에 ‘성주님 그늘 밑에 아홉 아들과 한 딸이 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9번 각편은 하나의 완성된 굿판을 채록하여 세밀한 채록 환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송기철본 이후 황우양의 본을 안동 제비원이라 제시한 부분이 삭제되어 다시 황우양의 본을 천하공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주풀이>는 각편 별로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서사단락은 큰 차이가 없다. 본고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되었고, 별다른 당착 없이 서사적 전개가 안정돼 있는 이성녀본(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각편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이성녀본 <성주풀이>의 내용이다.

- ① 천하공 천대목신과 지하공 지탈부인이 혼인하여 황우양을 낳는다.
- ② 천하공이 쇠동풍에 쓰러지자 황우양만이 지을 수 있다고 하여 채사를 보낸다.

30) 하우양씨 청새 흥새되어
부인 열두폭 치마에 싸였다가 나오더니
대다락에 대집게 소다락에 소집게 꺼내내어
소진왕놈 정수리 가죽 짝집어 돌돌말아 발꿈치에 붙여 놓고
발꿈치 가죽 짝집어 돌돌말어 정수리에 붙여놓고
선길 뜰아래 데구르르 궁굴리니
소진왕놈 하는 말이
군왕님아 군왕님아 이내 목숨 살려지다
(이용범, 『화성의 얼』3, 화성문화원, 1998, 198쪽.)



- ③ 채사가 황우양을 잡으려 하나 엄장이 커서 잡지 못한다.
- ④ 채사가 또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다.
- ⑤ 그 모습을 본 조왕할아버지가 측간에 갈 때 달려들어 잡으라고 알려준다.
- ⑥ 채사에게 잡힌 황우양이 연장이 없으니 석 달 말미를 달라하나 채사는 사흘 말미를 준다.
- ⑦ 황우양이 근심하자 황우양 부인은 천하궁에 소지를 올려 연장과 옷을 만들어 준다.
- ⑧ 황우양 부인은 황우양에게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하면 자신을 남에게 주는 것이니 대답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 ⑨ 소진뜰에 도착한 황우양은 소진랑이 두 번이나 말을 걸어도 부인 말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 ⑩ 소진랑이 황우양을 쫓아가며 애비없는 후레자식이라 하자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답한다.
- ⑪ 소진랑은 황우양에게 사각법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대신 의복을 바꿔 입자고 한다.
- ⑫ 의복을 바꿔 입은 소진랑은 황우양부인이 일색임을 듣고 황산뜰로 간다.
- ⑬ 황우양 부인은 마음이 심란하여 뒷동산으로 꽃놀이 간다.
- ⑭ 말굽 소리를 들은 부인은 도적이라 생각하고 문을 닫는다.
- ⑮ 소진랑이 황우양 행색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자 벌써 올 리가 없다면서 문을 열지 않는다.
- ⑯ 소진랑이 자신이 입은 황우양의 옷을 던져주나 땀 냄새가 다르다며 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⑰ 소진랑이 '제귀야'라고 세 번 부르니 문이 열린다.
- ⑱ 집 안으로 들어간 소진랑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부인 멍살을 잡는다.
- ⑲ 소진랑을 당할 수 없는 황우양부인은 시아버지의 제사가 끝나면 동침할 것이니 소진궁으로 돌아가 있으라 한다.
- ⑳ 소진랑이 돌아가자 살아 있으면 소진뜰로 오라는 혈서를 써서 주춧돌 밑에 숨겨 놓고 소진궁으로 간다.
- ㉑ 소진궁에서 황우양부인은 일곱 귀신이 자신의 몸에 있으니 개똥밭을 파고 구메밥 삼년을 먹은 후에 동침하겠다고 한다.
- ㉒ 천하궁에 간 황우양은 이상한 꿈을 꾸고 문복 자에게 문복해 달라고 한다.
- ㉓ 문복 자가 황우양의 집은 썩발이 되었고, 부인은 남의 궁에 시집갔다고 말한다.
- ㉔ 황우양이 일을 빨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나 이미 집은 썩발이 되고 주춧돌만 남았다.



- ㉔ 황우양이 탄식하며 주춧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태백산 까마귀가 ‘하석필’이라고 울고 간다.
- ㉕ 꿈에서 깬 황우양이 주춧돌 밑을 보고, 부인의 혈서를 발견한다.
- ㉖ 황우양은 소진뜰로 가서 소나무에 올라가 부인의 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 ㉗ 황우양이 왔음을 안 부인은 우물로 나오고 황우양 그림자가 물에 빗친다.
- ㉘ 죽었으면 울고 살아있으면 웃으라 하자 황우양이 웃는다.
- ㉙ 황우양은 부인에게 소진랑과 동침하였는지를 묻는다.
- ㉚ 동침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황우양은 청새, 홍새가 되어 부인 치마 폭에 싸여 소진궁에 들어간다.
- ㉛ 소진랑은 황우양 부인이 준 술을 마시고 잠이 든다.
- ㉜ 황우양은 소진랑을 죽이려 하나 국공의 자손이라 그러지 못하고, 돌함 속에 가두어 물 한모금도 못 먹게 하고, 식솔은 거리의 성황이 되어 침을 받아먹거나 짐승이 되어 포수들의 표적이 되게 한다.
- ㉝ 소진랑을 징치한 후 황우양은 성주가 되고, 부인은 자신이 된다.

<성주풀이>의 서사를 살펴보면 ‘가족의 성립-남편의 부재-악인형 인물에 의한 가족 관계 파탄-부부의 합심으로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주풀이>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악인형 인물의 등장으로 가족 관계가 위기를 맞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문전본풀이> 각편 현황 및 특성

제주도에서 불리는 <문전본풀이>는 문전굿에서 구송된다. 문전굿은 문전신에게 집안의 무사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굿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문전굿을 지내는 방식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종합의례인 큰굿의 일부분으로 하기도 하지만 단독의례로 하기도 한다. 또한 음력 정월을 택일하여 지내는 정기적 문전굿이 있는 한편 혼례, 출타, 입주 등의 집안 대소사가 있는 경우에도 비정기적으로 문전굿을 한다. 이처럼 심방을 불러 집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문전굿을 성주제라



고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의 문전굿과 육지의 성주굿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전본풀이>는 서사적 유사성에 기인하여 <칠성풀이>, <살풀이>, <성신굿>과 동일 작품으로까지 취급되었다. 이들 신화는 '계모의 문복장이 매수를 통한 전체 자식 살해 기도'라는 공통된 신화소를 토대로 같은 신화 혹은 같은 계열 신화로 취급되어 함께 연구된 것이다. 하지만 정제호³²⁾의 연구 등에 의해 현재는 <문전본풀이>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칠성풀이 등에 등장하는 신은 가족 구성원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 가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신신화인 <문전본풀이>의 각편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전본풀이>는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조사된 이래 최근까지 12편의 각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본풀이의 전사 작업을 위해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전본풀이>는 최근에도 채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도 제주도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서사무가임을 알 수 있다.

연번	각편명	구송자	전송지역	조사자	발표지	발표년도
1	문전본풀리	박봉춘	제주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上	1937
2	문전본	이춘아	제주	진성기	남국의 무가 ³³⁾	1960
3	문전본	신명옥	제주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0
4	문전본	박남하	제주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0
5	남선비	안사인	제주	현용준	제주도 신화	1976
6	문전본풀이	안사인	제주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980
7	문전본	문정봉	제주	문창헌 필사	풍속무음 下	1982
8	문전본풀이	김연희	제주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1998

3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302-303쪽 참고.

32) 정제호, 앞의 논문, 2010.



9	문전본풀이	이중춘 김윤수	제주	강정식	한국음악 31	2000
10	문전본풀이	고대중	제주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2001
11	문전본풀이	이용옥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8
12	문전본풀이	양창보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13	문전본풀이	이만송	제주	국립문화재 연구소	제주도 성주풀이 ³⁴⁾	2013
14	문전본풀이	이만송	제주	국립문화재 연구소	제주도 성주풀이	2013
15	문전본풀이	고순안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표-3】 <문전본풀이> 각편 현황

<문전본풀이>는 '문전본풀이', '문전본', '남선비' 등의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 중 '문전본풀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다. '문전본'은 '문전본풀이'와 같은 이름이며, 안사인본 <남선비>는 안사인본 <문전본풀이>와 같은 자료이다.³⁵⁾ 따라서 본 고에서는 '문전본풀이'로 그 명칭을 통일하겠다.

<문전본풀이> 각편의 특성을 정리하면, 먼저 1번 각편은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라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로 채록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하지만 다른 각편에 비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

33)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은 2002년에 발간되었는데, 그 책에 채록된 자료는 『남국의 무가』와 동일 한 자료로 방언 및 고어를 현대어 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34) 『제주도 성주풀이』에는 두 개의 <문전본풀이>가 실려 있다. 첫 번째는 1980년 3월 1일 제주시 '이도1동 인화동 현씨 댁'에서 구송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며칠 앞서 1980년 2월 24일 '신제주 고씨 댁'에서 구송된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녹음 불량으로 인하여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목욕을 간 후부터 막내아들이 멧돼지의 간을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가져가기까지의 내용이 빠져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1)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8쪽 참고)

35) 정제호, 앞의 논문, 2011, 10쪽 참고.



히 오동나라에 있던 남선비가 여산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나 막내아들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정체를 의심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없어 전체적으로 축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3, 4번 각편은 진성기에 의해 조사된 자료로 『남국의 무가』에 함께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서사구성이 탄탄한 편이지만, 조사 상황이나 세밀한 채록 환경까지 첨부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세 개의 각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2, 3번 각편은 막내아들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시험하는 부분에서 집을 찾아가는 것을 시험한 다른 각편과 다르게 열쇠를 찾는 시험으로 대체되거나 추가되었다. 또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일곱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청태산 할망이 듣고, 일곱 아들에게 알려 주는 부분이 빠져있다.

4번 각편은 하늘에서 내려온 남선비가 우연히 지상의 여인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여인과 결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결연담은 다른 각편에서는 볼 수 없다.³⁶⁾

5, 6번 각편은 둘 다 안사인에 의해 구연되었으며, 서사적 짜임새가 별다른 당착 없이 잘 정돈되어 있다. 다만 6번 각편이 본래의 구연상황을 그대로 채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5번 각편은 조사자에 의해 일정정도 편집되었다.

7번 각편은 문창헌에 의해 필사된 필사본으로 국문과 한문이 함께 병기되어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각편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시험하는 부분에서 막내아들을 제외한 형제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어머니로 믿고 있다.

8, 9, 10번 각편은 채록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으며, 다른 각편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이점 없이 비슷하게 전개된다.

11, 12번 각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제주도 본풀이의 보존을 위해 발간한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11번 각편은 이용옥 심방이 실제 굿

36) 김재용은 결연 이후의 서사진행이 다른 각편들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4번 각편에서만 보이는 결연담은 구연자에 의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용, 앞의 논문, 2004, 76쪽 참고)



에서 연행한 본풀이를 채록한 것이 아니라, 심방이 구연한 순서에 따라 제주시 소재 풍물굿패가 구연한 내용을 채록 전사하였다.

13, 14번 각편은 한명의 심방에 의해 구연되었다. 두 개의 각편은 <문전본풀이>가 불리는 성주굿 전체 제차를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채록 환경과 구연 상황을 담고 있어 의의가 있다. 다만 13번 각편은 녹음불량으로 인하여 생략된 부분이 있다. 막내아들이 여산부인으로 변장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의심하는 장면이 빠져있는 것이다.

15번 각편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자료집으로, 고어와 구비적 어휘 표현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다만 다른 각편과 별다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전본풀이>도 각편 별로 세부적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서사단락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고는 실제 굿을 채록한 자료로, 초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전개가 안정되어 있는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의 안산인본을 기본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각편을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은 안산인본 <문전본풀이>의 서사내용이다.

- ①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아들 일곱을 낳고 가난하게 산다.
- ② 남선비는 무곡장사를 하러 배를 타고 오동나라로 들어간다.
- ③ 남선비는 오동나라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바둑 장기를 두고 놀다가 배까지 팔아먹고 노일제대귀일 딸의 초막에서 곤궁하게 지낸다.
- ④ 삼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에 간다.
- ⑤ 여산부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선비에게 밥을 차려 준다.
- ⑥ 집으로 돌아온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목욕하자고 꺾어서 연못에 빠뜨려 죽인다.
- ⑦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으로 변장하며, 남선비에게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죽였다고 속여 남선비의 집으로 간다.
- ⑧ 아들 칠 형제는 부모를 만났으나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간파하고 이어서 다른 형제들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알게 된다.
- ⑨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아들 칠형제를 모살하려고 꺾병을 앓는다.



- ⑩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남선비를 속이기 위해 문복장으로 변장한다.
- ⑪ 남선비는 아내의 병을 고치고자 문복을 하고 아들의 간을 먹여야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는다.
- ⑫ 청태산 마구할망이 불을 빌리러 왔다가 남선비에게서 아내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⑬ 청태산할망이 이 소식을 칠형제에게 알려준다.
- ⑭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은 여섯 형들의 간을 내겠다고 자원하여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꿈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
- ⑮ 녹디생인이 멧돼지의 간을 내어 노일제데귀일의 딸에게 전한다.
- ⑯ 노일제데귀일의 딸이 간을 받아먹지 않는 것을 문구멍으로 엿본 녹디생인이 들어가 화를 낸다.
- ⑰ 칠형제가 달려들자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목을 매어 자살하고, 남선비도 놀라서 도망가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는다.
- ⑱ 칠형제는 서천 꽃밭에 올라가서 환생꽃을 얻어다가 금부채로 부쳐서 어머니를 살려낸다.
- ⑲ 어머니는 삼덕조왕, 아버지는 정살지신이 되고, 녹디생인은 문신, 나머지 형제들은 오방장군이 된다. 반면 노일제데귀일의 딸은 측도부인이 된다.

<문전본풀이>의 서사는 ‘가족의 성립-가장의 부재-악인형 인물에 의한 가족 관계 파탄-모자(母子)에 의한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성주풀이>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전본풀이>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함께 다뤄지고 있어, <성주풀이>와 차이를 보인다.

두 신화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서사 구조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서사 비교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는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족의 성립-남성주인공의 부재-악인형 인물에 의한 가족 관계 파탄-여성의 도



움으로 인한 가족 관계 회복'이 그것이다. 특히 결말에서 두 신화는 각각 남편과 일곱 아들이 가족 관계를 회복했다는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주인공의 도움으로 가족 관계의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신화의 서사 구조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두 신화의 서사 내용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것이다.

1) 가족의 성립

두 신화는 가족의 이야기이며, 가족이 가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신화 모두 천부지모의 형상을 통해 자식이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는 유사성이 보인다.

먼저 <성주풀이>에서 황우양의 아버지는 천하궁의 천대문신이며, 어머니는 지하궁의 지탈부인이다. 이는 천상의 존재인 아버지와 지상의 존재인 어머니의 결합을 나타내며 천부지모 즉, 천지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문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가 천상의 존재이며 여산부인이 지상의 존재이다.

조정성 뜰남애기 혼술 두술 열다섯 시오세가 나아가니 아방 입단 상의장 어망 입단 상의장 7는대구녁 딜어깨로 은막개를 들이치고 뗏뺑걸이로 걸머지고 젖대골은 허리에 연방춤에 느립네다. 금줄골은 흘모개기에 연적골은 좃통에 스답을 와랑차랑 흐염더니 하늘옥황수문대장 아들이 용열래기 아사놓고 머리를 단장하되 외우빚에 느다달고 느다빚어 외우달고³⁷⁾

박남하본에서 남선비는 하늘 옥황의 아들이고, 여산부인은 지상 조정성의 딸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문전본풀이> 역시 <성주풀이>와 마찬가지로 천부지모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37)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0, 121쪽.(박남하본)



두 신화는 가족의 성립부분에 천부지모의 형상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성주풀이>에서는 황우양의 부모가 하늘과 땅에 각각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부모는 해와 달로 모두 천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성주풀이>는 주신격인 성주신으로 좌정하는 인물이 황우양이기에 황우양의 부모가 천부지모로 나타난다. 반면 <문전본풀이>는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 주신격인 문신으로 좌정하기 때문에 녹디생인의 부모인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출신이 하늘과 땅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주풀이>는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어 서사가 진행되지만 <문전본풀이>는 부부와 함께 일곱 아들이 등장하는 3세대 이야기이다.

2) 남성주인공의 부재

가신신화에서는 서사 전반에 남성주인공의 부재가 나타나고, 이는 가족을 분리시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성주풀이>에서는 쇠동풍으로 무너진 천하궁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편의 부재가 이루어진다. 이는 집짓는 능력을 인정받아 상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분리로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의 개입이 가능해져 위기가 초래된다. <문전본풀이>에서는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친의 부재가 일어난다. 하지만 무곡장사를 떠난 남선비는 전 재산을 잃은 채 노일 제대귀일의 딸을 첩으로 두고 그 곳에서 거주한다. 그리고 이는 외부의 인물을 가족 관계로 끌어드린 결과가 되어 악인형 인물이 가정 내로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듯이 두 신화는 남성주인공의 부재 상황이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은 조금 다르다. <성주풀이>에서 황우양은 자신의 능력 발휘를 위해 떠나지만,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떠난다. 특히 남선비가 가정의 가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집을 나선다는 점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지만 실상 출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악인형 인물에 의한 가족 관계 파탄

두 신화에서 악인형 인물이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성주인공의 부재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가족 관계는 파탄에 이른다.

<성주풀이>에서는 악인형 인물인 소진랑이 등장한다. 그는 황우양이 없는 틈을 타 황우양의 옷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다. 그리고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고자 하여 가정에 시련을 안겨주는 인물이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등장하여 남선비를 찾으러 온 여산부인을 죽인 후 옷을 통해 그녀로 변장한다. 그리고 남선비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일곱 아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두 신화에서는 옷이 변장의 수단으로 쓰였는데, 서로 다른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가신신화에서 악인형 인물은 변장을 통해 가정 내로 침입하여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르게 나타난다. 소진랑은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고자 악행을 저질렀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완벽히 가족 안으로 편입하고자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즉 소진랑은 오로지 황우양 부인과의 육체적 관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서 나아가 남선비의 부인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는 것이다

4) 여성의 도움으로 인한 가족 관계 회복

두 신화는 여성주인공의 도움을 받은 인물이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고 가족 관



계를 회복한다는 서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성주풀이>에서 황우양 부인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황우양을 도와 악인형 인물을 징치한다.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비록 악인형 인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꿈을 통해 녹디생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 인해 녹디생인은 형제들과 함께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고 문신으로 좌정한다.

가신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주인공은 가족 구성원이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성주풀이>는 조력의 대상이 남편인 것에 반해 <문전본풀이>는 그 대상이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다. 여산부인이 남편이 아닌 아들을 도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아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전본풀이>의 일곱 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주신격으로 좌정한다.



Ⅲ.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의 양상

앞서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서사를 비교하였다. 두 신화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지만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 역시 비슷하게 나타난다. 남성주인공은 부재를 통해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고, 여성주인공은 가족구성원을 도와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 또한 두 신화 모두 악인형 인물이 등장하여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결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이 좌절하고 있는 신격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신화는 신의 내력을 푼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격에 영향을 끼치는 차이는 신화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신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1. 남성주인공 - 황우양과 남선비

가신신화에서 남성주인공은 부재를 통해 가족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악인형 인물에 의해서 가족이 고난을 겪지만 그 원인은 남성주인공의 부재와 그로인한 가족의 분리로 볼 수 있다. 가족의 분리로 완전했던 공동체가 불완전해지면서 악인형 인물이 가정 내로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서 이들의 양상은 달라진다. <성주풀이>의 황우양은 부인과 다시 결합하지만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여산부인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둘의 결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1) 가족 분리의 주체

<성주풀이>는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남성주인공인 황우양은 황우양 부인과 황산뜰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얼마 후 천하궁 재건이라는 상부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난다. 그가 천하궁 재건의 책임자로 선택된 이유는 집짓는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황우양은 천상의 아버지와 지상의 어머니의 결합으로 태어난 인물이다. 즉 천부지모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조상의 신성한 혈통을 제시함으로써 자손의 고귀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에서는 천부지모라는 부모의 신성한 혼인을 통해 주인공이 탄생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성주풀이>의 황우양 역시 천부지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으로 어렸을 적부터 집짓는 능력이 뛰어났다.

하우왕님 어려서 클적에 장난을 놀아여도 나무꺾어 집짓는 장난 나무를꺾어 집짓는 장난
흙을돋아서 집을돋어 집짓는 장난을 놀어놓니 하우왕님 거동봐라 인물이 도자하구 재주가
비상하야 만고일색 되었는데³⁸⁾

그러나 황우양의 출가는 황우양 부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황우양 부인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연장을 마련하여, 황우양이 무사히 천하궁을 재건하러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누구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주며, 이를 어길 경우 가정의 위기가 초래됨을 경고한다. 하지만 황우양은 소진뜰을 지나가던 중 악인형 인물인 소진랑을 만나 그 금기를 어기게 된다. 처음부터 황우양이 소진랑의 말에 대답하는 것은 아니다. 소진랑이 ‘후레자식’이라하자 부모를 욕보일 수 없다며 대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개법을 알지 못하면 천하궁을 재건 할 수 없다는 소진랑의 말에 속아 사개법을 배우는 조건으로 옷을 바꿔입는데 동의한다.

황우양은 자신의 과업을 위해 출가하며, 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38) 조희웅, 『구비문학대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294쪽.



소진량과 옷을 바꿔 입는다. 또한 아내의 경고를 통해 금기를 어길 경우 가정에 위기가 초래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부모를 욕보일 수 없어 금기를 어기고 만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욕은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우양은 전반부에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가문의 영예나 자신의 능력 발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는 외부 존재인 소진량의 가정 내 침입이 가능한 이유가 된다.

가족의 분리가 일어난 후 황우양과 옷을 바꿔 입은 소진량은 그로 변장하여 가장이 부재중인 황우양의 집 안으로 침입한다. 그리고 부인을 겁탈하려 하면서 부부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

부부의 시련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힘이 아니라 부부의 합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부재는 부부 관계를 불완전한 관계로 만들며, 이를 통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시련이 나타나는 것이다. 황우양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시련을 주는 것은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이지만 결국 천하궁 재건을 위한 황우양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문전본풀이>는 부부와 일곱 아들이 등장하는 3세대 이야기이다. <성주풀이>에서는 황우양의 부모가 천부지모이지만, <문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가 천상의 존재이고, 여산부인이 지상의 존재이다. 둘의 혼인은 천상적인 존재와 지상적인 존재의 신성한 혼인으로 천지결합이라 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는 경제적 결핍으로 일곱 형제를 키우기가 힘들어지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의 부재가 일어난다. 그러나 가장의 부재는 여산부인의 권유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선비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흐를날은 여산부인이 말을 흐뵈

『우리가 응 허영은 조식(子息)덜토 하지고 살 수가 엇이니 무곡장수(貿穀商)나 허여보기 어쩍네까?』³⁹⁾

39)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99쪽.



남선비는 부인과 아들이 마련해준 물건을 가지고 무곡장사를 하러 떠난다. 오동나라에 도착한 그는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만나고, 그녀의 꼬임에 빠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노름으로 모두 탕진한다. 그 곳에서 남선비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유희(遊戱)를 즐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 더욱 집중한 것이다.

그 후 남선비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집에서 곤궁하게 생활한다.

남선비가 바둑 장길 버려놓고 옹 튀곡 저영 튀곡 놀단 보난 전배독선(全船獨船) 다 풀아 먹고 노일제대귀일의 톨광 남돌쳐귀 거적문 대축낭 웨지동 비조리초막에 앉아 제축 단지옴의 차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개』드리멍 속속 졸암십데다.⁴⁰⁾

가장의 부재이자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을 것이다. 특히 일곱 아들에게 있어서 유아기의 부성(父性) 결여는 자신들이 동일시화 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산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부재는 일종의 가족스트레스⁴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⁴²⁾ 배우자가 부재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기에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여산부인은 남선비를 찾고자 자신의 집을 떠나 오동나라로 가게 된다. 즉 남선비의 부재에 이어 여산부인의 부재까지 일어나면서 가족구성원이 모두 분리되는 것이다.

남선비는 자신을 찾으러 온 여산부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오동나라에서 남선비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다. 가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기에 그는 자신의 부인이 밥을 차려 주어도 그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40)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399쪽.

41) 가족스트레스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체계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 즉 변화의 압력과 긴장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이란 가족체계가 현상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요인들을 이르는 말인데, 가족성원의 부재도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333-335쪽 참고.)

42)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14, 구비문학회, 2002, 329-330쪽 참고.



모습은 노일제대귀일의 딸과의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남선비는 그 곳에서 가장 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얻어 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남선비는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며, 이를 통해 제3자의 개입과 여산부인의 부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파탄은 가족구성원의 결여로 발생하기에, 남선비의 부재가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신신화의 두 남성주인공은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시련을 주지는 않지만 부재로 인하여 시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 둘의 행동은 차이를 보인다.

2) 가족 결합과 징치 여부

후반부에서 <성주풀이>의 황우양은 부재의 원인이었던 천하궁 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천하궁 재건은 황우양이 성주신으로의 자격을 얻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몇몇 본에서는 그 장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황에양씨는 천하궁에 올라가서 속달 열흘 집을 지으시랴구 서산에 서장목 지여내구/대산에는 대장목 비어내여 중기둥 상기둥 도리 중방감을 비어서 침산에 올라 침을 떠서 양머리를 떠미여 여기여 더기여 미여다가 육지에다가 내려놓고 곧은 낭구는 곧게 다듬구 굽은 낭구는 굽게 다듬어 사개를 앓인 후에 홀루 단신 집터를 잡으실 적에 이리저리 동서남북 다니시다 아 여기가 능이로구나 허구 집터를 닦으시구 월지경을 다으실랴구 홀로 단신 지경을 다으실 제 여기여차 지경이오 여기여차 지경이라 지경을 다 다신 후에 주춧돌을 누리시랴구 무슨 주춧돌을 누려 보까 은주춧돌을 누려 보랴 금주춧돌을 누려 보랴 고석주춧돌을 누려 보까 참주춧돌을 누려 보까 호박주춧돌을 누려 보까 바둑주춧돌을 누려 보까 이리저기 궁굴리다가/에라 이것저것 다 고만 두고 금주춧돌 은주춧돌을 여기저기 느려놓고 상기둥 세여놓아/중기둥 세여놓아/상낭을 올리신 후에 새를 올리시랴 허구 이리저리 석가래 걸어놓아 상낭을 올린 후에 도리 중방 끼어놓고 오이를 얹으시면 흙을 다 파다가 이기서서/안벽치구 밧벽쳐 덩그러니 초가 삼간을 지어놓고⁴³⁾



이처럼 황우양이 천하궁 재건을 수행하고 돌아온 일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한 것이며, 이를 성공함으로써 그는 신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신의 자격을 획득한 황우양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주체가 된다. 천하궁 재건 이후 황우양은 꿈을 통해 가정의 위기를 예감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폐허가 된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꿈을 꾸고, 꿈 속 까마귀의 도움으로 부인의 혈서를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시련을 준 소진랑을 부인의 도움으로 징치하였는데, 이는 소진랑에게 속아 금기를 어겼던 서사 전반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부에서는 소진랑의 힘이 더 강했다면 과업을 성공한 후반부에는 황우양이 더 강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황우양은 전반부에 과업을 위해 금기를 어겼고,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후반부에서는 과업에 성공한 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소진랑을 징치한 황우양은 분리되었던 황우양 부인과 다시 재결합하며 부부 관계를 회복한다.

이에 반해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남성주인공인 남선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가족 부양이라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자신을 찾으러 온 여산부인을 죽인 후 그녀로 변장하여도 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남선비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며, 이는 외부 인물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드리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곱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다시 한 번 속아 자신의 일곱 아들을 죽이고자 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똥, 삼시(霎時)에 베(腹) 아픈 신병(身病)을 일루와 구들 닢 구석을 펑펑 돌명

『아야 베어, 아야 베어.』 죽을 스경(死境) 뉘여 간다.

남선고를 남선비 혼겁을 집어먹고 『어찌하민 조리아.』

노일제대귀일의 똥 말을 헛뉘 『설운 남인(男人)남아, 날 살리커건 올로 요레 가당 보민 대로 노상(大路路上)에 맥을 써 앓앙 문복(問卜)을 허염실거메 문복이나 지어나 줍서.』

43)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94-195쪽.(심복순분)



남선비가 먼문 백기 나아가난 노일제대귀일의 뚝은 뒷담 넘어 소로(小路)로 큰길 잡아
아전 대로노상(大路路上) 둘러가고 맥을 썬 앓았더니, 남선비가 간 말을 허뵈 『문복(問卜)
이나 지어줍서.』

『어떤 문복이 뵈옵네까?』 『우리 부인님이 삽시에 신병(身病) 일루완 소경(死境)에 당해시
니, 어느 도에 죄망(罪網)이멍 문복을 허여줍서.』

손까락을 오그럭 폐와 허다네 『남선비님아, 아들 일곱성제(七兄弟) 있소리까?』 『예, 있음
네다.』 『일곱성제 애를 내여 먹여사 신병(身病) 조으리다.』⁴⁴⁾

남선비는 과업에 성공하지 못하였기에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후반
부에서도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여, 가장으로서의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인물로
형상화 된 것이다. 이후 남선비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정체가 막내아들인 녹디
생인에 의해 밝혀지자 도망치다 정살에 걸려 죽게 된다.

이처럼 남선비는 가족 부양에 실패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으며, 부인을 죽음으로 내몰며 가족 결합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후반부에서는 과업 수행과 과업 실패로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획득과 도
망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2. 여성주인공 - 황우양 부인과 여산부인

두 신화의 여성주인공은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다. 또한 남편의 부재로 개입된 외부 인물에 의해 희생당하는 희생 주체
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외부 인물에게 끝까지 저항하
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외부 인물을 가족의 일원으
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둘의 결말에도 영향을 미쳐 주목해야 한다.

4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05-406쪽.



1) 가족을 위한 희생

<성주풀이>에 등장하는 황우양 부인은 남편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다. 황우양이 천하궁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장이 없어 고민할 때, 제를 올려 연장을 마련해준다.

황우양잠들어놋코, 소지(燒紙)한장지여니여
턴하궁에치첫드니
가로쇠닷말,놋쇠닷말,편쇠닷말
열닷말을나리시고
대산에대풀무,소산에소풀무,대독씩소독씩
대툭소툭,자귀먹통대피,먹잠넌들어놋코
사철의복버선신발,모든법절다헌후에
서산나귀솔질하야,반부담실녀놋코⁴⁵⁾

황우양이 천하궁 재건을 위하여 출가하는 것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이다. 이처럼 부인이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출가한 그를 기다리는 모습은 고전문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소이다. 남편의 출세가 가문의 영예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장을 마련해 주는 황우양 부인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나영은 황우양 부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녀가 무당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황우양 부인이 하늘에 소지를 올려 연장을 받아낸 행위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제권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방울이나 칼, 명두 등의 쇠로 만든 재료들은 무당에게 꼭 필요한 재료이기에 쇠를 단련하여 연장을 만들어내는 행위 역시 무당이라면 일상적이 일이기 때문이다.⁴⁶⁾

황우양 부인의 출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가 받아들여져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모습은 그녀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45)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3쪽.

46) 김나영, 앞의 논문, 2011, 25-26쪽 참고.



있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가정에 단칠 위기도 미리 암시할 수 있는 것이다.

황우양 부인은 황우양에게 천하궁을 재건하러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뢰상잔상 감하시고 황산뜰 성주이룩 가시거든~
부인(婦人) 말이라고 허사(虛辭)로 여기지 마시고
황산뜰 가시거든 난데없는 소지맹이 나시거든~
인구대척(應口對蹠) 하질 말고 돈담무식 가시야지 만약에 황산뜰 가시다가 난데없는 인간
을 만나야
인구대척 하시며는 하우황님 생명(生命)이 위태(危殆)할 것이니~
돈담무식(頓淡無心) 가옵소사⁴⁷⁾

특히 송기철본에서는 황우양에게 말을 걸어 가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대상이 소진량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성녀본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처를 남을 주는 것이니’라고 가정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황우양은 대장부가 가는 길에 요망하게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면서 오히려 그녀를 책망한다. 또한 소진량이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 황우양에게 ‘후레자식’이라 욕하자, 오히려 그녀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는다면서 부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세번 몸건만 응대척이 읊어놓니
애비 읊넌 흠애자식 분명쿠나
황에양시가 그 소리 듣더니
내가 여자에 말을 듣다가는 부무에 욕을 잔뜩 맥일 거 같구나 허구
말잔등이 썩그러니 내려앉아
여보 아해가 가거나 으른이 가거나
말 묻자 허넌 건 애비 없는 흠애자식이 아납디까⁴⁸⁾

47) 박경신, 『안성무가』, 집문당, 1990, 277쪽.

48)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90쪽.(심복순본)



이 역시 주체적인 가장과 순종적인 부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이 하는 일에 부인이 개입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조연한 황우양 부인의 행동이 오히려 비난받는 것이다. 가정의 안녕을 위해 조연한 부인이 책임 받는 모습을 통해 <성주풀이>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황우양 부인은 황우양이 금기를 어기면서 일어난 시련에 대신 희생당하는 인물이다. 황우양과 옷을 바꿔 입은 소진량은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침입한다. 황우양 부인이 가정의 안녕을 위해 준 금기를 오히려 원망하는 황우양에 의해서 제3자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황우양 부인은 가부장적 사회의 희생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과 달리 지상 조정승의 딸로 명시되어 있어 귀족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사 내에서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집이 가난하여 일곱 아들을 키우기가 어려워지자 그녀는 남선비에게 무곡장사를 권유한다. 또한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해주어 남선비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여산부인은 가정의 경제적 궁핍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또한 무곡장사를 떠난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아 밤마다 그를 찾아 바닷가에서 헤매며, 결국에는 남선비를 찾아 오동나라로 가는데 이 역시 여산부인이 얼마나 활동적인 인물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여산부인은 전면에 나서서 가정을 이끌지는 않는다. 그녀에게 남선비는 집안의 가장이자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녀는 재물을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 첩까지 만들어 살고 있는 남선비를 보며 원망하기보다는 반가워한다. 또한 남선비가 부인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서운해 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밥을 못해먹은 것을 슬퍼한다.

남선비가 허락하난, 여산부인이 정짓간을 들어사고 솥을 올안 보니, 체죽은 부쩍 늘어시난 솥을 초편 이편 제삼편을 다까놓고 나주양산 은영미쥬를 놔네 저녁밥을 지어야전 남선비



아필 가져가난 남선비가 첻술를 들르멍 눈물을 다르룩기 흘립데다.⁴⁹⁾

여산부인은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첻까지 만든 남선비에게 밥을 해주며 끝까지 남편을 돌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처와 첻이 등장한다. 하지만 표면적인 처첻갈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남편인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첻으로 인정하였기에, 부인인 여산부인 역시 저항하지 않고 이를 순순히 받아 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여산부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황우양 부인처럼 여산부인 역시 남편의 잘못으로 대신 희생당하는 것이다.

두 가신신화의 여성주인공은 적극적으로 남편을 돕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악인형 인물을 만나서는 그 양상이 달라진다.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에 맞서는 반면,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악인형 인물을 인정하고 있다.

2) 악인형 인물에 대한 태도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을 끝까지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황우양으로 변장 한 소진량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미리 정체를 알아차리고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침입이 거부되어 화가 난 소진량은 도술을 사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다.

황우양 부인은 소진량이 자신의 힘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지혜로써 동침을 거부한다.

① 황우양씨첻의부인매게잡힌뽕이되고
개게물님닭이로다.할수업싯쇠를내여
소진량보고허는말이

49)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02쪽.



신정(新情)도 좇커니와 구정(舊情) 좇차이 즐손가
 해가저서 밤이 되면, 시아버님 친기(親忌)오니
 제사나 지내인 뒤에, 자리 동품하옵시다
 대장부의 처가살이 귀향살이 갖스옵고
 녀자의 식집살이 원살이와 갖스오니
 그대궁을 가사이다

② 소진들로 날여갈제

부인이 또 한 꾀를 생각하야, 방소이나 보옵시다
 일천록(一天祿⁵⁰), 이안손(二眼損), 삼식신(三食神), 사승패(四徵破)
 오귀륙갑시(五鬼六舍食) 칠칠귀방위신(七進鬼方位神)이라
 나의 몸에 일곱 귀신이 지첩하야 잇스오니
 기뻛게 해지함파고, 구메밥삼년 먹은 후에
 자리 동품하옵시다

①번은 황우양 부인이 시부모님의 제사를 핑계로 소진량과의 동침을 거부한 것이며, ②번은 몸에 귀신이 붙어 동침 할 수 없다고 꾀를 낸 장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황우양 부인과 소진량이 머무르는 공간의 변화이다. ①번에서 소진량은 황우양 부부의 집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②번은 황우양 부인이 소진량의 집 안이 아닌 밖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는 소진량이 계속해서 부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황우양 부인은 소진량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황우양 부인은 이를 소진량이 자신의 집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공간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도 소진량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보여주었다. 집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예로부터 신성시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황우양 부인은 외부 인물이자 가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인물인 소진량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며, 자신도 그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후 황우양 부인은 개똥밭에 머무르면서 소진량과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황우양을 만난다. 그리고 황우양에게 소진량을 징치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적극

50)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6-137쪽.



적으로 황우양을 돕는다. 새로 변한 황우양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숨겨 소진량의 집으로 갔으며, 황우양이 소진량을 징치할 수 있도록 동침하자고 소진량을 속여 잠이 드는 술을 먹인다.

이처럼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을 만난 후 그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반면에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만나 별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

여산부인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만나자 남선비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여산부인을 큰 부인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 그녀를 작은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산부인 역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형님’이라고 부르며 목욕가기를 청하자 순순히 응하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방으로 들어가니 남선비 말을 흐뭇

『여산고능 큰부인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 말 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오유월(五六月) 한더위에 우릴 찾아 오져 흔게 언매나 고생을 헛데가? 읍서 우리 시원이 몸모욕(一沐浴)이나 허영 오랑 저녁밥(夕蝕)이나 지어 먹어 놀기 어쩔넬까?』

춤말로 안 여산부인은

『어서 걸랑 그리 하자.』⁵¹⁾

이처럼 여산부인은 악인형 인물을 인정하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강가로 목욕하러 갔으며,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지만 여산부인은 죽은 후에도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곱 아들을 돕고 있다.

설운 성님네 돌아아전 짚은 굴산 올라가단 시장에도 물려지고 해남석 앓안 졸단보난 맹왕(冥王) 가던 어머니가 꿈에 선몽(現夢) 드리뉘

51)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03쪽.



『설운 아기덜아, 어서 바빠 눈을 텅 브레여 보라. 산중(山中)으로 노리(獐) 흔 머리가 느러 오람시니 그 노릴 심영 죽일 팔로 돌림시민 알 도례(道理) 이시리라.』⁵²⁾

앞서 여산부인은 남편인 남선비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전본풀이>가 <성주풀이>처럼 가부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후반부에서 그녀는 남선비가 아닌 일곱 아들을 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징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의 문제 해결 능력을 남선비에게서 일곱 아들에게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선비가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지 못했고, 부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일곱 아들의 목숨 역시 위태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을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태롭게 만들었기에 조력의 대상이 변화한 것이다.

여산부인은 꿈을 통해 일곱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환생한 후 신으로 좌정한다. 그리고 여산부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일곱 아들도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징치하고 신으로 좌정한다. 결국 여산부인은 전반부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남선비를 도와주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일곱 아들을 도와주고 있다.

가신신화의 두 여성주인공은 서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족 구성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비해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는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에 맞섰지만 여산부인은 악인형 인물을 인정하여 죽임을 당하였기에 나타난 차이로 볼 수 있다.

3. 악인형 인물 - 소진랑과 노일제대귀일의 딸

두 신화는 악인형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이들 인물은 타인의 가정에

52)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03쪽.



침입하여 가족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달라 주목할 만하다. <성주풀이>의 소진량은 육체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였고,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완벽히 가족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은 변장이라는 부정한 방식을 통해 나타났는데, <성주풀이>의 소진량은 변장에 실패하는 반면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차이를 보인다.

1) 관계 지향에 따른 행동 양상

<성주풀이>의 소진량은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고자 악행을 저지른다. 즉 육체적 관계인 성적 욕망에 의해 가족 구성원과 대립하는 것이다.

이성녀본에서는 소진량의 출신을 나타내고 있어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황우양씨이론말이
 너를피를내여죽일것이로되
 국공의자손이라,그는그리못할망정
 돌함속에가두어서
 물한목음못먹게하야놋코⁵³⁾

위의 인용문은 황우양이 소진량을 징치하는 장면이다. 이 때 소진량이 국공의 자손이라 죽이지 못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황우양과 마찬가지로 소진풀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 그의 신분이 미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우양이 집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소진량은 도술을 부릴 수 있다. 이는 도술을 통해 황우양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성적 욕망 즉 본능을 위해서 발휘하고 있다. 비록 황우양이 자신

53)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9쪽.



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이고, 천하궁 재건이라는 일 자체가 대의를 위한 일이기에 부정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소진량은 타인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소진량은 황우양이 소진뜰에 나타났을 때, 금기를 어기도록 하였고, 사개법을 들먹이며 옷을 바꿔 입도록 유도 하였다. 아비없는 후례자식이라 황우양을 자극해 대화를 하도록 유도 했으며, 사개법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지으면 죽는다고 속여 이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옷을 바꿔 입은 것이다. 이처럼 그가 황우양을 속여 옷을 바꿔 입은 이유는 황우양으로 변장하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황우양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였다.

소진량은황우양의부인이

인물이일색이란말을듯고,황산뜰로날여갈제⁵⁴⁾

소진량이 황우양 부인의 미색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진량이 황우양을 죽이고 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옷만 바꿔 입는 다는 사실이다. 옷을 바꿔 입은 소진량은 황우양이 천하궁을 재건하려 떠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남편을 죽인 후 그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을 꾸리려는 의도보다는 단순히 부인의 미모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가 없는 틈을 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진량은 황우양의 옷만 빼앗고는 그의 집으로 향한다.

이처럼 소진량의 악행에서는 변장이라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는 등장인물의 옷을 통해 가능했다. 옷은 사람의 지위와 성향을 반영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옷이 변장의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완벽히 가족 안으로 편입하고자 악행을 저지른다.

54)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5쪽.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출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춘아본에서는 그녀가 있는 곳이 오동나라가 아닌 노일국이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그 곳의 주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동남풍이 부난 배를 놓완
녹일국이 들어간다.
녹일국이선 주인이엿 못는 건
노일제대칩이 주인을 못안⁵⁵⁾

하지만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사는 곳이 작은 초막이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동냥을 해서 남선비를 부양하기 때문에 서술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곡장사를 온 남선비를 꺾어 노름으로 재물을 모두 탕진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선비의 재물을 탈취하여 부자가 되었다거나 남선비를 버렸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남의 집일을 하여 얻거나 동냥한 것으로 남선비를 봉양한다. 이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를 자신의 남편으로 여기며 함께 가정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앗엉(가지고) 간 전배독선(준배獨船)
(말) 다 풀아 먹어 달 디 올 디가 엇엇구나. 석덜 열흘 백일(百日)은 다 뒤퍼가는구나. 노일제대귀일이 톨 허는 말은 읍서, 나허고 나영 강 살명(살면서) 부부 삼양 살명 마당에 곡석(穀食) 널건(널거든) 새 좇아(또아) 먹제(먹으려고) 허건(하면) 새나 다울리명(쫓으며) 나영 강~
살아봄찌~.⁵⁶⁾

재산을 탕진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남선비는 자신을 부양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첩으로 인정하고 있다.

55)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0, 103쪽.(이춘아본)

56) 국립국악원, 『한국음악』31, 국립국악원, 2000, 142쪽.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을 죽이는 것 또한 이러한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첫 번째 부인인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오자 자신의 위치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그녀를 죽인다. 여산부인이 오기 전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의 유일한 부인이었지만 여산부인이 온 후 그녀는 작은 부인 즉 첩의 지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산부인을 죽인 후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옷을 통해 그녀로 변장 하여, 남선비의 집으로 들어간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죽인 후 남선비의 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되어 더욱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자 한 것이다. 그녀는 첩으로 인정받았지만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강제로 남선비를 자신과 함께 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죽었다고 하자 남선비가 이를 좋아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 여산부인 입은 입성(衣服) 벗겨 입고 남선비 앞의 들어가서
『설은 낭군(郎君)남아,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行實)이 꽤 씩씩군데 주청강 연못디 간 죽
여두고 오랴수다.』

남선비가

『하하, 그 년 잘 죽였저. 나 원수 가팠구나. 글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⁵⁷⁾

따라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이 되어 남선비와 함께 안정적이고 완성된 가정 안에 정착하고 싶어 하였다.

이처럼 <성주풀이>의 소진량과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장을 통해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진량은 변장에 실패하는 반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부분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이다.

57)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04쪽.



2) 변장을 통한 가정 내 침입

먼저 <성주풀이>의 소진량은 황우양으로 변장한 채 그의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부인에 의해 변장은 실패하고 만다. 지혜로운 부인은 소진량이 입은 옷이 자신이 만든 것은 맞지만 황우양의 땀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집의 대문을 잠가 열지 않기 때문이다. 황우양 부부의 공간으로 소진량의 진입이 거부되자 소진량은 도술을 사용하여 황우양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은 가족 구성원이 영위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은 소진량이 도술로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입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소진량의 진입이 거부되는 것은 소진량을 외부의 존재로 인식하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소진량의 진입은 황우양 부인의 지혜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황우양 부인은 곧 있으면 시아버지의 제사이니 먼저 소진궁을 돌아가면 자신도 가겠다고 하여 소진량을 그의 집을 보낸다. 그렇다고 소진량이 이를 거부하고 황우양의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인이 소진뜰에 갔을 때 소진량의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개똥밭에서 머무르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 첩의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고, 그 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한다. 소진량 역시 황우양 부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고자 한 것 보다는 단순히 성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진량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기에 황우양에 의해서 징치 당한다.

이처럼 소진량은 황우양을 대신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미인인 황우양 부인과의 동침을 목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

반면에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장에 성공한다. 여산부인으로의 변장을 남선비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변장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왔던 일곱 아들 특히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에게 이를 들키고 만 것이다. 따라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하지



만 이 역시 완벽히 가족 안으로 편입하고 싶은 그녀의 욕망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남선비의 나라로 간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아들을 만나서 바로 죽이려 하지 않는다. 밥상을 차려 주는 등 일곱 아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곱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죽이려고 한다. 이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에게 셋 쌍둥이를 세 번 낳아주겠다고 약조 한다. 이는 남선비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 대신 자신을, 일곱 아들 대신 자신의 자식으로 대체시켜 가정을 만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아들에게 이러한 악행을 들켜 도망가다 죽음에 이른다.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 원인은 완벽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가신신화에 등장하는 악인형 인물은 변장이라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정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주풀이>는 황우양 부인에 의해 실패하였지만 <문전본풀이>는 남선비가 이를 알아보지 못하여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 알아보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변장을 통한 악행의 목적은 성적욕망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편입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IV. 가신신화에 있어서 신격과 공간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서사무가에서는 주인공의 신격 좌정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그런데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는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신은 단순히 직능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공간에 좌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신화는 공간과 신격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이는 공간의 성격과 신의 성격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두 신화에 나타난 신격을 분석하고, 신격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1. <성주풀이>에 나타난 신격

<성주풀이>에 나타난 신격으로는 성주신과 지신, 장승(선왕)이 있다. 성주신은 가장인 황우양이 좌정한 신격이다. 황우양은 전반부에 가족 분리의 주체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과업에 성공하고, 소진량을 징치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 특히 천하궁 재건이라는 과업은 신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이를 성공함으로써 신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부에 소진량에게 속아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황우양은 후반부에 그를 징치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황우양이 좌정한 성주신은 첫째, 집을 짓고 지키는 신이며, 둘째,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관장하는 신⁵⁸⁾이다. 황우양은 어렸을 적부터 집짓는 능력이 뛰어나 천하궁 재건의 책임자로 뽑힐 정도로 천하제일의 목수이다. 그리고 천하궁 재건에 성공하면서 첫 번째 자질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자질은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을 징치하고, 황우양 부인과 재결합에 성공하면서 검증하였다.

5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307쪽 참고.



이처럼 황우양은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신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고, 그의 능력과 업적이 반영되어 성주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신은 황우양 부인이 좌정한 신격이다.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인물들은 지모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천부지모 관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토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대부분을 얻고 있던 시기에 토지는 물질적 생산과 풍요로움의 근원으로 여겨져 지모신으로 숭상되었다. 따라서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도 지모신의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사 내에서 황우양 부인이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진랑에 맞섰으며, 황우양을 도와 그를 징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황우양이 마련하지 못한 연장을 마련하고, 금기를 제시하면서 황우양을 도왔기에 지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터는 집을 세울 수 있는 땅을 뜻하며,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 터가 좋아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기에 터의 역할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황우양 부인이 지신으로 좌정한 것은 황우양에 대한 끊임없는 조력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우양 부인이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정절을 지킨 것도 포함된다. 실수를 통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한 황우양이 천하궁을 재건한 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부인의 정절이다.

황우양씨깃거하야, 허허웃고나려오며
그사이를못참어서, 남의처가되였는가
부인이이론말이, 내무엇이라하옵뵈가
뭇는말대답하야, 나까지고 칭하얏스나
그놈과노랏가지상관없시파하야왔시오니
원슈갑고갓치가서, 질거옵게사옵시다⁵⁹⁾

정절을 지켰기에 황우양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

59)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9쪽.



로 인하여 그간 그녀가 했던 행동을 인정받아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 황우양 부인은 황우양보다 가정의 안녕을 위하였고, 지혜로웠지만 황우양의 인정을 통해서만 부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신격으로 좌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신격 좌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로 인해 <성주풀이>는 가부장적 특성이 강하게 내재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신신화인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는 악인형 인물도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이는 악인형 인물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다른 서사갈래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 중 <성주풀이>의 소진량이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이유로 신동흔은 소진량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적인 존재’란 아직 특정 신직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로 등장하는 인물을 말하며, 이들이 신직을 얻어 신이 되는 것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이들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신으로 좌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신은 아닌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소진량은 국공의 자손이며, 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진량이 황우양의 집으로 갈 때 칠천병마와 오방군졸을 거느리고 가는 장면을 통해 그의 지위 역시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우양이 소진뜰을 지날 때 말을 타고 가는데, 이는 소진뜰의 공간이 황산뜰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황우양씨작별허고,채를들어한번치니
 닳는말살갓하야,황산뜰눈썰에지나
 소진뜰에다달으니,소진뜰의소진량이
 비루먹은말에다가
 줌먹은안장지여타고
 소진뜰로날여오며⁶⁰⁾

이처럼 소진량은 황우양과 대등한 존재이기에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것이다.

60)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134쪽.



하지만 소진량이 좌정한 신격에 대해서는 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번	각편명	신격	비고
1	성조본가	돌함	국공의 자손이라 돌함에 넣음
2	성주굿	장승	돌함에 넣어 장승으로 만들
3	성주굿	서낭	밥을 준 공을 인정하여 서낭으로 만들
4	성주굿		
5	성주굿문서	육시즈참	
6	성주굿	선왕	
7	성주굿	돌함	
8	성주	목-서낭, 몸-장승	
9	성주굿	천하장군, 지하장군	

【표-4】 소진량의 신격 비교

정리하면 소진량은 돌함, 장승, 서낭으로 좌정하였다. 하지만 심복순본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진량을 돌함에 넣어 장승으로 만들었다는 대목을 통해 돌함도 장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진량의 신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승이고, 두 번째는 선왕이다. 이 중 장승의 성격은 아래의 관련 설화를 통해 더욱 잘 알 수 있다.

옛날, 어느 임금의 때에 장모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나쁜 놈의 참언으로 관직을 벗어 시골에 가서 살게 되었다. 부인은 죽고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딸의 나이가 차자 정승은 은근히 딸의 미려함에 취해 혼자 마음 가운데 여색을 탐내고 있었다. 드디오 참고 있노라 니까 병이 났다. 그리고 앓아 드러누웠다. 한편 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각 방면으로 애를 썼으나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지요.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아버지께서는 마루 밑에서 개 짖는 소리를 세 번 짚어 주십시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 딸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의 집 뜰에 있는 큰 나뭇가지에는 불쌍한 딸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 그 후 이 아버지의 병이 차차로 나아 죄도 면제되어 관직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관모 꼭대기에 이슬이 맺혀 있을 뿐 아니라 모자 주위에는 개털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 연유를 물으니 귀곡선생이라는 유학자가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임



금은 대노하셔서 인륜을 저지른 대죄인이라고 하여 극형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보이기 위해 그의 인상을 나무에 새겼다고 한다. 지금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나 혹은 길에 세워진 통나무에 위는 불칙한 얼굴을 하고 밑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고 쓴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장승이라고 하며 도로의 수호신이나 역신을 쫓는 것으로 알고 있다. 61)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장승은 경각심을 보이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진량이 장승으로 좌정한 것 역시 남의 가정을 해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주풀이>의 서사 끝에는 소진량이 장승이나 서낭으로 좌정하게 된 이유를 악한 행동으로 인해 남의 침이나 받아먹으라는 의미에서였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악인이라서 위의 신격으로 좌정하는 것은 아니다. 장승과 서낭은 그 제의의 성격이 달라 전혀 다른 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량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다양한 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으로 좌정하느냐의 것이 <성주풀이>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진량이 좌정한 신격이 성주신이나 지신처럼 고정된 신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진량이 좌정하는 장승, 서낭 등은 모두 마을의 초입이나 입구에 자리한 하위 신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주목하여 신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2.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신격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집 입구의 신이 정살지신이 되고, 여산부인은 부역에 좌정하여 조왕신이 된다. 그리고 일곱 형제는 일문전과 뒷문, 오방신이 되어 모두 문을 지키는 신으로 좌정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가족 부양에 실패하면서 전반부·후반부 성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온다. 그 결과 악인을 징치하

6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장승 홈페이지』, <<http://jangseung.culturecontent.com>>



려던 일곱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도망가던 중 정살에 걸려 죽음에 이른다. 이후 남선비는 정살지신⁶²⁾으로 좌정하는데, 정살은 제주도에서 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신의 일종이다. 하지만 제차로 독립되지 않고 밥만 따로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 주신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도 가신신화에 서 주신격은 일곱 아들이 좌정한 문신이다.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무능력한 모습은 단순히 남성주인공의 무능력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전신으로 좌정하는 일곱 아들의 위치가 공고히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 아들은 천상의 존재인 남선비와 지상의 존재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주풀이>의 황우양과 같이 천부지모의 자손으로 비범한 존재인 것이다. 그들이 신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남선비의 부재로 나타난다. 유아기의 부성 결여는 일곱 아들로 하여금 사고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⁶³⁾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를 겪은 일곱 아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독립적으로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일곱 아들은 가정의 중심적 인물이 되어 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즉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선비로부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 일곱 아들에게로 신격 계승이 일어난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지위는 일곱 아들에 의해 뺏기게 되는데, 신격 계승의 방식으로 살해라는 전복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기력이 다한 신을 살해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 좌정함으로써 새로운 신격의 위상을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신격의 부상을 위해 무능력한 남선비의

62) 예전에 제주도 사람들의 일반 주거는 초가였다. 이에 따라 마을은 초가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올레'라고 하였다. 특히 마을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자리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정주목, 정주석을 세웠다. 또한 정주목에 곧은 낭이라는 뜻으로 '정살' 또는 '정낭'을 설치하여 집 안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대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500쪽 참고.)

63) 유아기의 부성 결여가 사고의 독립을 가져온 실례로는 사르트르와 다빈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사르트르는 "적당한 시기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다. 사생아로 태어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다빈치는 아버지와 동일시 화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대신, 자신을 거부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물이 되겠다는 욕망을 갖게 된 것이다.(김영진,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황금가지, 2001, 106쪽, 145쪽 참고.)



역할이 내재된 것이다.⁶⁴⁾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서사 내에서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첩으로 인정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기에 처한 일곱 아들을 돕게 된다. 여산부인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일곱 아들에 의해 조왕신으로 좌정하는 것이다. 이는 남편에 의해서 신직을 얻은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신 남편을 살해한 일곱 아들에 의해 구원 받고, 그 아들들에 의해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이는 그의 조력 대상이 남편인 남선비에서 일곱 아들에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의 역할은 전반부에서는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여산부인은 아들에 의해 환생하였으며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조왕신으로 모셔진다. 예로부터 부역은 여성의 공간이며, 안주인이 맡아서 살림한다. 그렇기에 여산부인 역시 부역의 신이 되어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한 이유가 서술되어 주목할 만하다. 여산부인이 서사 내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속아 차가운 강가에 버려졌기에 따뜻한 부역의 신으로 좌정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님을 살리고 집으로 돌아오란

『어머님은 춘화추동(春夏秋冬) 스시설(四季節) 물에만 살젠 허난 몸인덜사 아니 실립네까? 어머니랑 허를앗앙 삼식번(三番) 더운 불을 초명 삼덕조왕으로 앗앙 얻어먹기 서련흠서.』⁶⁵⁾

이처럼 일곱 아들을 도운 공을 인정받은 여산부인은 문전제에서 문신과 함께

64) 어리석고 쇠약한 아버지가 힘이 왕성하고 현명한 아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신들의 모양을 자기 자신의 모양과 닮도록 창조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J. G.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296-322쪽 참고.)

6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13-414쪽.



모셔진다. 뿐만 아니라 문전제 시작 전에 조왕에게 먼저 제를 올려야 하기에 제주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격인지를 알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서도 악인형 인물이 신으로 좌정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축신으로 좌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곱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도망가다 측간에서 죽기 때문이다. 축신을 모시는 축신곳은 매년 정기적으로 굿이나 의례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안 식구 가운데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면 지역에 따라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떡과 밥 등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격으로 좌정하고, 무당과 신앙민들에게 모셔지고 있다. 따라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신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전본풀이>의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가장인 남선비는 여산부인을 큰 부인으로 칭하면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작은 부인으로 여겼고, 여산부인 역시 이를 부정하지 않고 함께 목욕을 감으로써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이기에 그녀는 악인형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측간은 어둡고 칙칙한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불쾌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좌정한 축신 역시 성정이 사나운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변을 당하면 살(殺)을 맞았다고 하여 불길하게 생각했으며, 측간에 갑자기 들어가면 축신이 머리카락으로 목을 졸라 병을 얻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변소를 고치는 일을 각별히 조심했고, 미리 헿기침을 해서 신경질적인 축신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한 어린아이가 측간에 빠지는 것은 축신이 밑에서 잡아당긴 탓이라고 여겼으며, 아이가 측간 바닥에 떨어지면 얼이 나갔다고 보았다.⁶⁶⁾

도성(都城) 안에 명통사(明通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맹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들은 초

6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675쪽 참고.



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모여 독경과 축수를 일삼았다. 그 중 높은 사람은 당 안에 들어가고 낮은 사람은 문을 지킨다. 여러 문에 창을 벌려 놓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한 서생이 몸을 솟구쳐 넘어 들어가서 대들보에 올라앉았다. 맹인이 조그만 종을 치는 것을 보고 서생이 종을 끌어올려 버리니 맹인은 종치는 방망이를 휘둘러 허공을 친다. 그런 뒤에 다시 종을 내려놓았다. 맹인이 손으로 만져보니 종이 여전히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 거듭하니 맹인이 말하기를 “안의 작은 종이 무엇인가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였다. 여러 맹인이 둘러앉아서 점을 쳤다. 한 맹인이 “이것은 벽 사이에 박쥐가 붙어서 그렇게 한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모두 일어나서 벽을 만져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또 한 맹인이 “이것은 틀림없이 저녁 닭이 대들보 위에 앉아서 그런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맹인이 앞다투어 길다란 막대기로 대들보 위를 두들겼다. 서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땅에 떨어졌다. 맹인들이 서생을 묶고 매질을 하였으므로 서생은 영금영금 기어서 돌아왔다.

이튿날 서생이 삼노끈 두어 가닥을 갖고 절에 가서 측간에 숨어 있으니 주맹인이 변소에 와서 웅크리고 앉는 것이었다. 서생이 갑자기 노끈으로 맹인의 양근(陽根)을 매어 당기니 맹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구원을 청했다. 여러 맹인이 앞다투어 와서 측원을 했다. “주사(主師)가 측귀에게 화를 입게 되었소.”라고 하였다. 혹은 이웃을 불러 약을 구하는 자가 있고, 혹은 북을 울리며 명을 비는자도 있었다.⁶⁷⁾

위의 인용문은 용재총화에 수록되어 있는 측신과 관련 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측신이 실제로 화를 준 것이 아니라 서생이 맹인 점복자를 골탕 먹이는 것인데, 맹인 점복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측신에게 화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측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자하여 저지른 악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측신은 신성한 공간인 집 안에 좌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신격을 단순히 성격과의 관계로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다.

67) 성현, 남만성 역, 『용재총화』, 대양출판사, 1982, 191쪽.



3. 신격과 공간의 상관관계

앞서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들의 신격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신격과 그들이 좌정한 공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곳의 성격을 통해 두 신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주굿은 지역에 따라 그 명칭과 연행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기도 지역은 집 안에 성주신을 모셔 놓으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고사를 하고 재수를 발원하는 성주굿을 한다. 그리고 이 곳에서 성주신의 내력을 밝힌 <성주풀이>를 구연한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성주풀이를 한다. 새로 지은 집에 성주신을 모셔 앉히고 집안의 행운을 비는 성주굿을 제주도에서는 성주풀이라고 하는 것이다.⁶⁸⁾

제주도 성주굿의 제차는 ‘삼석울림-초감제-추물공연-강태공목수-문전본풀이-각도비뉘-상당숙임-액막이-도진-으로 짜여있다. ‘강태공목수’는 집짓는 과정을 굿판에서 재현낸 거리이고, 집짓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동티를 제거함과 동시에 성주신을 맞아들여 좌정시키는 의례이다. 제주도에서는 성주신의 내력을 밝힌 서사무가가 없는 대신 문신의 내력을 밝힌 <문전본풀이>가 성주굿에서 불린다. 특히 제주도의 성주굿에서는 성주상의 재물을 그대로 문전상에 차린 후 <문전본풀이>를 구연하고, 본풀이가 끝나면 남은 재물을 그 집의 가장인 대주(太主)에게 물려주어 음복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성주는 집을, 문전은 집 안을, 대주는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⁹⁾

즉 같은 가신신화이지만 ‘강태공목수’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기도 지역의 <성주풀이>는 집 자체에 대한 신화이고, 제주도의 <문전본풀이>는 집 안 공간에 대한 신화이다. 따라서 <성주풀이>에 등장하는 신은 집에 좌정한 신이며, <문전본풀이>의 등장하는 신들은 집 안의 좌정한 신으로 볼 수 있다.

<성주풀이>에 등장하는 성주신은 가옥의 신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의

6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470쪽, 472쪽 참고.

6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3, 6-7쪽 참고.



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신은 집터의 신으로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좋은 터에 지은 집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집과 터는 가족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이에 부부의 합심으로 악인형 인물을 징치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한 황우양과 황우양 부인이 그 곳의 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반면 소진량이 좌정한 장승 혹은 서낭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입구라는 것은 마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본다면 마을의 끝이기도 하다. 즉, 마을 구성원들에게 집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소진량이 좌정한 마을 초입이다. 결국 소진량이 위치하는 곳은 생활공간 내에서 가정과 가장 먼 곳을 의미한다. 즉 소진량은 가정에서 가장 먼 곳에 좌정하는 것이다. 이는 소진량이 육체적 관계를 맺기 위해 무단으로 여성을 겁박하는 인물이기에 가정과 가장 먼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사 내내 황우양 부인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못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집 안에 좌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성주풀이>에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한 황우양 부부는 집 안에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소진량은 집 밖에 좌정하고 있어, 집이 얼마나 신성한 공간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집 안에 좌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간을 살펴보면 같은 집 안의 신이라고해도 여산부인과 일곱 아들은 상방⁷⁰⁾에 속한 신이지만 남선비는 상방과 떨어진 곳에 좌정하고 있다. 상방은 집 안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신성시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같은 가신이면서 공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산부인과 일곱 아들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데

70) 상방은 -자형 겹집을 기본으로 한 제주전통주택의 중앙에 위치한 마루방을 말한다. 이 상방을 통해 방에 해당하는 큰 구들과 작은 구들, 쳃방과 고팡, 마당과 인뒤 등으로 출입 할 수 있다. 따라서 집 안의 다른 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상방의 앞쪽 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을 대문이라 한다. 바로 이 대문을 주관하는 신이 문전신이다.(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23, 대한건축학회, 2007, 182쪽.)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남선비는 계속해서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선비는 문신의 하위신격인 정살지신으로 좌정하여 상방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좌정한 측신은 집 안 측간에 위치한 신이다. 따라서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악인이지만 남선비에 의해 첩의 지위를 획득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더 나아가 끊임없이 처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도에서 측신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중에 정낭각시⁷¹⁾라는 이름이 있다. 정낭은 제주도 지역에서 집의 출입구에 대문 대신 걸쳐 놓은 굵은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가 정낭에 목이 걸려 숨져 정낭신이 된다. 정낭신은 정살지신의 또 다른 명칭이다. 따라서 정낭각시라는 명칭은 정살지신인 남선비의 부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남선비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집 안에 좌정한 이유가 된다. 외부인이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었기에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 안의 신격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부인을 죽이고, 일곱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에 집 안에서 가장 먼 곳인 측간에 좌정하는 것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좌정한 측간은 여산부인과의 대립관계 때문에 부엌에서 가장 먼 공간으로 위치했다고 보고 있다.⁷²⁾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조왕은 집의 중심이 되는 상방에 붙어 있지만 측신은 그 공간에 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측신은 집 안에 좌정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가장 먼 공간이며,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집 안에 좌정하지만,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집 안에서 가장 먼 곳에 좌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이들 신은 집 안에 좌정하고 있지만 여산부인

7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673쪽 참고.

7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676쪽 참고.



과 일곱 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한 공을 인정받아 상방에 좌정하였고,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였기에 상방에 속하지 못한다.

한국의 가신신화에서 신격은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악인이어도 가족이라면 집 안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가신신화는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좌정 공간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의 신화인 육지의 <성주풀이>와 제주도의 <문전본풀이>는 가신의 내력을 밝힌 가신신화이다. 두 신화는 전승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그 점에 주목하여 두 신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각편을 정리하고, 그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주풀이>는 전국에서 채록되고 있으나 교술 무가도 <성주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였다. 본장에서는 신의 내력을 밝히고 있어 분석의 자료가 되는 서사무가형 <성주풀이>를 따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채록된 9편의 각편을 제시하였다. <문전본풀이> 역시 <칠성풀이>와 변별적으로 비교·연구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에 따라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본풀이의 전사 작업을 위해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어, 최근에 채록된 자료까지 포함하여 15편의 각편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편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 본을 설정하였다.

두 신화의 대표본을 설정하여 그 서사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성립-남성주인공의 부재-악인형 인물에 의한 가족 관계 파탄-여성의 도움으로 인한 가족 관계 회복'으로 그 구조가 유사하였다. 따라서 서사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특히 두 신화는 서사 내의 인물의 역할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고찰한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형상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가신신화에서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고 있어 등장인물을 '남성주인공 - 황우양과 남선비', '여성주인공 - 황우양 부인과 여산부인', '악인형 인물 - 소진량와 노일제대귀일의 딸'로 나누어 각각의 행동양상과 그에 따른 결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신화는 신의 내력을 푼 이야기이다. 따라서 신직에 영향을 끼치는 차이는 신화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남성주인공은 가족 분리의 주체이다. 남성주인공의 부재로 가족이 분리되고, 이를 통해 가정의 위기가 초래된다. <성주풀이>에서 황우양은 천하궁 재건이라는 과업을 위해 출가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인형 인물인 소진랑에게 속아 금기를 어기게 되고, 이를 통해 소진랑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등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문전본풀이>의 남선비 역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무곡장사를 떠난다. 하지만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만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여산부인이 그를 찾으러 오면서 또 다른 가족의 분리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황은 일곱 아들까지 위기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는 두 남성주인공의 행동에 차이를 보인다. <성주풀이>의 황우양은 천하궁 재건이라는 과업에 성공한 후 소진랑을 징치하고, 황우양 부인과 결합하였다. 반면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여산부인을 죽인 후 그녀로 변신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다. 또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속아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 가족 결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신신화의 두 여성주인공은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다. 하지만 단순히 조력자로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적에 의해 희생당하는 희생 주체이기도 하다. <성주풀이>의 황우양 부인은 남편의 과업을 위하여 천하궁 재건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장을 마련하는 등 그를 돕고 있지만 황우양이 금기를 어김으로써 악인형 인물인 소진랑에게 겁탈 당할 위기에 처한다.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도 남선비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곡장사를 권유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희생당하고 만다. 황우양 부인은 악인형 인물에게 저항하여 가족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여산부인은 악인형 인물을 인정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죽은 후에도 일곱 아들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아들 신에게 부여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악인형 인물은 가정 내로 침입하여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악행의 원인은 다르게 나타난다. <성주풀이>의 악인형 인물인 소진량은 성적 욕망을 위하여 황우양을 속여 옷을 바꿔 입는다. 그리고 옷을 통해 황우양으로 변장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다. 반면 <문전본풀이>의 악인형 인물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남선비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자 그를 속여 물건들을 모두 빼앗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남선비를 찾으러 온 여산부인을 죽인 후 그녀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인 척 하여 가정 내로 침입한다. 하지만 소진량이 황우양 부인에 의해 변장에 실패하여 역지로 가정 내로 침입한 반면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장에 성공하여 자연스럽게 침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식 살해를 기도하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행동 양상의 차이는 결말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 다른 신격으로 나타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고찰한 인물형상의 양상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격과, 좌정한 공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주풀이>의 황우양은 천하궁 재건이라는 과업에 성공하여 신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였고, 소진량을 징치하고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성주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다. 황우양 부인은 황우양을 도운 공을 인정 받아 ‘지신’으로 좌정한다. 가신신화는 악인형 인물도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소진량은 장승, 서낭 등 다양한 신격으로 좌정하고 있다.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다양한 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으로 좌정하는 것이 <성주풀이>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진량이 좌정한 신격이 성주신이나 지신처럼 고정된 신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진량이 좌정하는 신은 모두 마을의 초입이나 입구에 자리한 하위 신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주목하여 신격을 살펴보았다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남선비의 경우에는 황우양과 달리 후반부에 역할 변화가 없어 전반부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식인 일곱 아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며, 남선비는 일곱 아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정살에 걸려 죽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정살지신이란 신격을 얻게 된다. 여산부인이 조왕신으로 좌정하게 된 이유는 차가운 물속에서 죽었으므로, 따뜻한 부역의 신으로 자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산부인은 남편에 의해서 신격으로 좌정하는 황우양 부인과 달리 일곱 아들에 의해서 신으로 좌정한다. 이는 여산부인이 위기에 처한 일곱 아들을 구했기에 이를 인정받아서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신으로 좌정한다. 이는 일곱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자 도망가다 측간에서 죽기 때문이다. 측신은 악신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그녀의 행동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신화의 등장인물은 모두 신으로 좌정하고 있는데 그 양상이 다르다 <성주풀이>는 집 안의 신과 밖의 신으로 구별되고, <문전본풀이>는 모두가 집 안에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진량은 가족으로 거부되었지만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가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주풀이>는 악인을 가정 밖으로 위치하여 가정 내의 신성함을 강조한 것이고, <문전본풀이>는 가족 관계를 회복한 모자는 상방에 시련을 준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상방에서 떨어진 곳에 좌정하여 역할에 따라 구역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신신화에서 신격은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1) <성주풀이>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박경신, 『안성무가』, 집문당, 1990.

이용범, 『화성의 얼』3, 화성문화원, 1998.

조희웅, 『구비문학대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하주성, 『경기도당곳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2000.

하주성, 『화성의 얼』4, 화성문화원, 1999.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2) <문전본풀이>

국립국악원, 『한국음악』31, 국립국악원,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1)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창현, 『풍속무음』下,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소, 2008.

-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0.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上, 조선총독부, 1937.

2.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1.
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 민속원, 2005.
김영진,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황금가지, 2001.
서대석, 「성주풀이 연구」,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성현, 남만성 역, 『용재총화』, 대양출판사, 1982.
신동훈,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우산이인섭교수화갑기념논문집』, 우산이인섭교수화갑기념 간행위원회, 1995.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995.
이능화, 『조선무속사』, 백록문화사, 1976.
J. G.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3. 논문

1) 학위논문

- 김정원, 「성주무가의 유형과 표현구조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5.



- 배성순, 「성주무가의 유형비교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성길제, 「성주무가의 연구」, 한림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정제호,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별적 성격과 주제의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7.
- 홍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2) 학술논문

- 권복순, 「‘문전본풀이’의 대립적 인물성격 연구」, 『실천민속학연구』13, 실천민속학회, 2009.
- 권복순, 「<문전본풀이> 남선비의 심리구조와 그 의미」, 『語文學』114, 한국어문학회, 2011.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29, 열상고전연구회, 2007.
- 김나영, 「성주무가 사설의 ‘공간-영역’에 관한 세 층위의 분석」, 『인문과학연구』29,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2.
-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김정호 외, 「고전문화 : 한,일 사체환생신화 연구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오케 츠히메노카미"를 중심으로」, 『배달말』54, 배달말학회, 2014.
- 김태곤, 「무가의 전승변화 체계」, 『한국민속학』7, 민속학회, 1974.
- 김형준,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23, 대한건축학회.
- 박종성, 「<바리공주>와 <칠성풀이>의 동이성」,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 서대석, 「<칠성풀이>의 연구-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 성정희,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 이명숙, 「무속신화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돈암어문학』19, 돈암어문학회, 2006.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이창윤, 「북부형과 제주형 창세신화의 지역적 특성」, 『실천민속학연구』2, 실천민속학회, 2000.
- 장유정,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14, 구비문학회, 2002.
- 장유정, 「제주도 <문전본풀이>와 아이누의 <카무이 후치 아이유카르>의 비교 고찰」, 『국문학연구』7, 국문학회, 2002.
- 정제호,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여성 지위에 따른 전개 양상 고찰」, 『비교민속학』45, 비교민속학회, 2011.
- 최원오,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13, 국문학회, 2005.
- 최종성, 「가정신앙에 대한 재고 -가정신앙의 범주, 신, 그리고 의례-」, 『종교학연구』27, 한국종교학연구회, 2008.

4. 웹사이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장승 홈페이지』,

<<http://jangseung.culturecontent.com>>

